지난 2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한 '우리들의 사랑' 공연 장면. 〈문민기획 제공〉

김광석·유재하·김현식 '3대 전설' 만난다

음악·연극 결합 '액터뮤지션 뮤지컬'
'우리들의…'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잊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내 텅 빈 방문을 닫은 채로~"

심금을 울리는 노랫말로 서정의 극치를 보여준 김광석. 단 1개 앨범만으로 대중음악사에 족적을 남긴 유재하. 자신의 곡명과 같이 '비처럼 음악처럼' 살다 떠난 김현식….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이들은 심금을 울리는 노래로 대중들의 뇌리에 깊이 각인돼 있다.

1980년대 대한민국 대중음악사의 과도기를 빛낸 세 가객의 삶과 음악을 다룬 공연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화제다. 8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지는'우리들의 사랑'은 세 명의 레전드인 김광석, 유재하, 김현식의 음악을 연극과 결합한 '액터뮤지션 뮤지컬'이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풍년)의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문민기획이 제작했다.

공연은 천국에서 밴드를 결성한 세 뮤지션 김광석, 유재하, 김현식이 망자들을 위해 매일 라이브 콘서트를 여는 장면 등으로 문을 연다. 천사로 설정된 세 가객은 지상을 내려다보다 자신들의 노래를 길라잡이 삼아 싱어송라이터를 지망하는 주인공 이초희를 발견한다. 스물아홉 초희는 험난한 세파에도 굴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우리네 청춘을 닮았다. 호기심 반 안타까움 반에 세 음악천사는 옥황상제에게 간구해 초희의 뮤즈가 되는데…….

음악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 포크음악을 들려준다는 극적인 내용으로 전개된다.

"골목길 접어들때에/ 내 가슴은 뛰고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먼저 짝사랑의 애태우는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한 김현식의 '골목길'을 감상할 수 있다. 1991년에 발표한 이 곡은 명실상부 '김현식 베스트' 중 하나로 수많은 리메이크를 거치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왔다. 이어 '비처럼 음악처럼'은 김현식의 대표작 중 하나인데, 추적추적 비 내리는 정경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곡이다.

"또 하루 멀어져 간다/ 내뿜은 담배 연기처럼"의 김광석이 부른 '서른 즈음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불후의 명곡.

또 '사랑했지만'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랑의 잔향을 표현한 곡인데 '비'와 '사랑'이 모티브가 된다는 점에서 김현식의 '비처럼 음악처럼'을 겹쳐보게 만든다.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와 '우리들의 사랑' 등도 공연장을 수놓는다. 김광석·김현식의 음악적 감성과 유사하지만 사랑의 부드러움에 주목했다.

공연은 가로등 불빛이 반짝거리고 현수교 케이블이 늘어진 무대를 배경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노래에 문민기획 박경민, 이대희 등 6인이 참여한다.

이외에도 제목만 들어도 가슴 떨릴 법한 세 가수의 주옥같은 명곡이 울려 퍼질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문민기획 이금구 대표는 "한국 대중음악의 3대 전설들이 남긴 명곡을 편곡 없이 그대로 뮤지컬에 구현했다"며 "시대를 뛰어넘는 음악에 뮤지컬, 연극, 라이브 콘서트가 결합한 새로운 형식의 공연을 기대하셔도 좋다"고 말했다.

입장료 5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 만나요"

시민자유대학, '내일의 키워드, ESG' '벌거벗은 중국사' 등 강좌

'인간과 AI가 함께하는 세상', '내일의 키워드, ESG', '벌거벗은 중국사', '내면의 자화상 그리기' 등….

시민자유대학(학장 이유미)이 가을학기 다채로운 인문학 콘텐츠로 시민들을 만난다.

먼저 월요일(오후 7시) '사회와 철학' 시간 주제는 '내일의 키워드, ESG'. 기업의 새로운 경영 원칙이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ESG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양채열(전남대학교 교수), 문달주(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주홍(예술가), 김양현(전남대학교 교수), 김준하(GIST 교수), 정성구(도시문화집단CS 대표), 변상욱(CBS 대기자), 홍수열(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이 강사로 나선다. 지난 4일 강의가 시작됐으며 광주교육연수원 중강당에서 진행된다.

'벌거벗은 중국사: 황하문명에서 제국의 출현까지'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tvN 방송의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중국 고대사를 당대 문학작품으로 풀어낸 이성원 교수(전남대학교 사학과)가 맡았다. 5일 시작돼 8주 동안 고대 황하유역에서 발원한 중국 문명의 형성과정을 비롯해 초기 국가의 출현, 제자백가의 출현과 그 사상을 중심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올해도 마련된 미술창작워크숍은 주홍 작가와 함께 내면의 자화상 그리기를 한다. '주홍의 컬러풀마인드: 내면의 자화상 그리기'는 주 작가가 개발한 '컬러풀 마인드'를 통해 참여자들이 내면을 들여다보고 색과 선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이다. 창작 작품은 하반기 시민자유대학 미술전시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며 프로그램은 6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메이홀에서 펼쳐진다.

목요일(오후 7시)에는 '인간과 AI가 함께 성장하는 세상: ChatGPT와의 미래'를 주제로 정상호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혁신센터 선임연구원이 시민들을 만난다. 7일부터 시작해 8주 동안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실1에서 열린다.

수강신청은 시민자유대학 홈페이지. 기획특강 '내일의 키워드, ESG'는 비회원의 경우에 13만 원의 수강료가 있다. 나머지 과목과 특강은 무료. 문의. 062-961-11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쓰레기 때문에 '개굴개굴 고래고래'

ACC 어린이 공연, 8~9일 서울 노원어린이극장 무대

'왜 개구리가 울면 비가 내릴까?'

함부로 버린 쓰레기로 고통받는 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어린이 연극 '개굴개굴 고래고래'가 서울 무대에 오른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ACC 어린이 공연 '개굴개굴 고래고래'가 8일~9일 서울 노원어린이극장에서 공연된다고 4일 밝혔다.

'개굴개굴 고래고래'는 베트남 전래동화 '개구리가 울면 왜 비가 내릴까?'를 바탕으로 새롭게 창작한 어린이연극이다. 대중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2022 아시테지 겨울축제에 초청받았으며, 2021 춘천인형극제 대상을 수상했다.

작품은 쓰레기로 고통 받는 물에 대한 소중함을 환기하는 환경극이다. 어린이 관객을 위해 인형을 비롯해 그림자, 노래 등 다양한 요소를 활용했다. 아울러 공연 시작 전 '그림자 놀이'라는 부대 프로그램을 마련해 어린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ACC 어린이 공연은 노원문화재단과의 기관 교류협력을 통해 마련됐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기관과의 교류협력으로 ACC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람료는 2만원이며 공연은 36개월 이상 아동부터 관람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노원문화재단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

지난해 '개굴개굴 고래고래' 종로아이들극장 공연 장면. 〈ACC재단 제공〉

'벼꽃' 필 무렵 풍년 기원

고창농악보존회, 고창농악전수관서 '꽃대림축제' 성료

고창농악 '풍장굿' 공연 중 '당산굿'을 치는 모습. 〈고창농악보존회 제공〉

고창농악보존회(이하 고창농악회)는 제4회 '꽃대림축제'를 최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성료했다.

꽃대림축제는 풍년을 알리는 매개가 되기에 가장 귀한 꽃 중 하나로 여겨지던 '벼꽃'이 필 무렵 진행하던 '꽃대림굿' 정신을 계승해 매년 열리고 있다. 행사 일환으로 지난 25일에는 '제18회 고창굿한마당'이 펼쳐졌다.

마을 수호신 역할을 하는 산 '당산'에 인사한 뒤, 축제 참여 부스에 매굿(매귀안택을 기원하는 전통행사)을 치는 '들꽃대림'이 진행됐다. 또 '고창농악 상설굿판'에서는 김태훈, 이명훈, 임성준 등 6인의 '꽃대림 굿쟁이전'을 선보였다.

이어 26일 오전에는 오전 버스킹공연 이후 풍농을 기원하며 악기를 울렸던 '풍장굿', 동래지신밟기 보존회의 '동래지신밟기' 공연이 펼쳐졌다.

고창농악회 구재연 회장은 "꽃대림굿의 정신과 꽃 모티브를 이어받아 진행하는 한바탕 축제의 장"이라며 "공연자와 숙박객, 부스 운영자와 관계자 등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흥으로 어우러지는 국악 한바탕이었다"고 전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